

최저임금 타결...경영계·노동계 아무도 웃지 않았다

올해보다 5.1% 인상 91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 4차 대우행 등을 내세워 동결을 주장해온 것과 달리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이 결정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고용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던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 "노동자를 기만한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시작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희망 고문이 일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

경영계 "중기·소상공인 폐업·고용감소 부작용" 노동계 "1만원 대통령 공약 저버린 기만 행위"

름없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결정이자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일반노동자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산업별 위확대 계약으로 명목인상률과 실질인상률의 차이가 벌어지며 일개 손실도 보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법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문화된 구분 적용 조항은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집값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코로나19로 구조조정과 해고 위험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올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달리 지역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초월한 것으로, 오히려 실업난을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은 부담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할 수 없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도 감당하기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자료/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업의 임금지급 능력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시장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밖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업계는 매출 급감과 고용 축소 등을 통해 근근히 버티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회 또한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으로 당장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편이기에 상당수다"며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여왔던 편의점 업계는 내년부터는 그렇게라도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지경이다"고 호소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송중욱(가운데) 은행장이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100개 업무 적용 달성을 축하하며 주관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100개 업무 '로봇자동화'

광주은행의 주요 100개 업무가 로봇자동화된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00개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를 구현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업무 효율 개선과 핵심업무 집중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 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처음 도입했다. 1년에 걸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보통신(IT) 개발인력을 확보하며 업무 자동화를 추진해왔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은 PC환경에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단순 업무를 사전에 규칙을 설정한 로봇 소프트웨어에 적용해 자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업무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직원들은 정례적인 보

고서 작성·사후 관리 과정에서의 시간 소모를 줄였다.

광주은행은 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송중욱 은행장은 2년 반 전부터 업무 자동화 구현을 위한 시스템 도입과 구축 과정을 직접 챙겼다.

그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높이고, 고객 상담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RPA 업무의 지속적 확대와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며 "광주은행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지방은행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디지털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노사합의 먼저" 파업 경고

노조 "이전 계획 등 오늘까지 진전 없으면 16일 파업" 사측 "계획안 노조와 공유하고 9월말까지 확정할 것"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대한 노·사 선행 합의와 해외매각 당시 약속 이행 등을 이유로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13일 "사측은 베트남 해외공장 증설 3400억원 투자와 2023년 완공 등 구체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광주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 문제와 공장 이전 로드맵 자체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이전할 광주공장의 생산규모와 설비제원, 고용보장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현 공장부지 매각대금 일체는 회사의 차입금을 상환이 아닌 신규 광주공장 건설에 사용될 것 등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공장 이전은 사측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2018년 해외매각 당시 구성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우리사주 출연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며 "경영정상화가 이뤄졌음에도 반납된 정기상여금 200%의 환원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14일까지 진전된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16일부터 파업 돌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선임 급등, 반덤핑 관세 등으로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지난해 단체교섭 통상임금 인상분 적용과 차입금 상환, 통상임금 및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추가 지급여력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전 부지를 포함한 이전 계획을 마련해 노조와 공유하고 오는 9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한 공장 이전이 필요하다.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막혀있던 농식품 미국 수출길 뚫는다

aT, HMM과 업무협약...하반기부터 선적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막혔던 농식품 대미 수출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 국적선사인 HMM과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반기부터 미주로 운항하는 HMM의 임시선박 등에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화물 적재공간)이 운영된다.

우선 배정 물량은 월 265TEU(농식품 200·수산물 65) 규모다. 공사는 올해 다각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106억

달러 규모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 수출 전용 선복이 운영되면서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의 물류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공사 측은 기대했다.

최근 국외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출 업체들은 운임 상승과 선복난 등 물류대란을 겪고 있다. 공사는 지난 4월 '농식품 수출물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국내외 물류동향을 파악해왔다.

특히 해외운송 물류난이 가장 심한 미국 노선의 선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정부 부처·선사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 전용 선복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배정은 선착순 원칙이나 운송기간이 짧은 신선 농산물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71.38 (+24.91)
↑ 코스닥	1043.31 (+8.67)
↑ 금리(국고채 3년)	1.424 (+0.040)
↓ 환율(USD)	1145.40 (-1.60)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특판시기 : 2021. 7. 5 ~ 7. 23 (3주), 한도소진시 판매 종료

유니온 정기예탁금 12개월 연 2.06%

(세전 / 만기해지)

1 신한ON뱅크 어플 다운로드 후 조합원 가입 2 상품을 → 유니온정기예탁금 3 가입신청

파워 정기예탁금 18개월 연 2.0%

(세전 / 만기해지)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파란적금 36개월 2.0%

(은행권 전용상품) 세전 / 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항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적용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